

조선이공대 'K-move스쿨 연수' 주목

대기업 취업 희망학생 대상 어학·실무·취업교육 현지 IT업체 4곳과 업무협약 체결 실효성 제고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가 역점 실시하고 있는 K-move스쿨 연수과정의 주목받고 있다. K-move스쿨은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의 해외 진출 및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교육·현장실습·취업연계 등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의 운영대학을 선정

한다. 조선이공대는 지난해 3월 '2018년도 K-move스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6월25일부터 올해 5월16일까지 11개월간 광주지역 2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JAVA 스마트웹 개발자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최근에 교내 프레젠테이션실에서 연수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K-move스쿨 연수생 1인당 총 936만원이 지원됐으며, 이번 연수에 참가한 조선이공대학생 11명 중 현재 10명이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K-move 연수 종료 후에도 조선이공대의 취업면접 및 취업알선 등 지원은 계속될 예정으로, 일본에 취업하는 연수생들이 앞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이공대는 지난 2017년 'K-move스쿨 해외취업연수' 사업선정을 시작으로, K-move스쿨 연수과정을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현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어학, 직무,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일본 취업 관련 연수과정과 다채로운 전공 실무 및 취업교육 등 일본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K-move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일본 현지 IT업체 4곳과 채용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조 총장은 "K-move사업이 일본 등 해외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청년들의 취업문제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많이 기대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지역은 물론 해외 산업에



조선이공대학교 K-move스쿨 일본 JAVA 스마트웹 개발자 과정 수료식.

에서 요구하는 인성과 기술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이공대는 지난 2일 교내 국제교류원에서 대학 K-move스쿨 연수생

5명을 대상으로 일본기업 ㈜코스모건설링 관계자가 직접 참가한 JAVA 스마트웹 개발자과정 1대1 취업면접 자리를 마련하는 등 학생들의 일본취업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종민기자

조선대 과학문화초대석 22-30일 총 4차례 개최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은 4차례에 걸쳐 과학문화초대석을 개최한다. 과학문화초대석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과학연구와 과학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의융합적 사례들을 통해 과학의 대중화, 과학 문화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을 접할 수 있다. 강연은 22일 표준과학연구원 배병호 박사의 '단위, 자연에 다시 묻다', 28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민 박사의 '과학의 문화, 과학이 담긴 문화, 과학적 문화', 29일 전북대 이병수 교수의 '한국 고생대 석회암이 간직한 비밀', 30일 Texas A&M Univ. 김선자 교수의 '자가면역질환에 대하여'이다. 강연은 조선대 자연과학관에서 진행되며, 오후 4시 또는 4시30분에 시작된다. /김종민기자



광주교육청-방통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협약. 광주교육청이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와 '사이버폭력 및 스마트폰의 유해정보와 중독으로부터 광주지역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와 함께 인터넷 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콘텐츠와 사이버안심존 소프트웨어를 교육현장에 제공하게 된다. /광주교육청 제공

동강대 "힘든 마음 공감하고 함께 치유해요"

'마인드 닥터' 등 다양한 인성 교육 정신건강 지키기 앞장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인드 프로그램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학생상담센터(센터장 나현주)는 지난 3월부터 매달 재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인드 닥터(MIND Dr.)'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마인드 닥터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교내 학생상담센터로 방문해 무료 상담을 한다. 마인드 닥터는 지난해까지 '마음건강주치의'로 운영됐다. 마음건강주치의는 동강대가 2016년 8월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약을 맺고 고민 상담이 필요하거나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

역 내 건강증진센터나 지정병원에 도움을 청하는 전국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구성원 외에도 지역민들에게까지 개방하며 외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동강대는 마인드 닥터 외에도 '마인드 시리즈'를 운영하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인성 함양에 힘쓰고 있다. '마인드 마켓(Mind Market)'을 운영해 지난해 기부금으로 재학생 2명에게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밖에 진료와 취업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을 위한 도심 속 템플스테이 '마인드 풀니스(Mindfulness : 명상)'와 말바우시상 상인들의 고통을 듣는 '마인드 허브(MIND HERB)'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종민기자

전남교육청,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 총력

교원 전문성 신장, 학교폭력 업무지원체계 등 행정력 집중

전남도교육청이 다양한 형태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학내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9년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계획과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회복적 생활교육의 조기 정착에는 교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보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 풍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별 전문가 41명 양성

하기 위한 연수를 160시간 과정으로 운영하는 한편, 전남교육연구원을 통해 초·중등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광역(전남) 연구회 1개, 권역(동부·중부·서부·고흥) 연구회 4개를 운영 중이다. 연구회에는 600명의 교사가 참여해 회복적 생활교육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연구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교육지원청 중심 교원연수, 권역별 교원워크숍을 통해 교사들의 역

량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민과 학부모 화해·조정 전문가 양성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사 역량강화와 함께 학교폭력 발생 시 효과적인 현장 처리가 회복적 생활교육 정착에 핵심요소라는 판단 아래 지역 단위 업무지원체계 구축, 교육법률지원단, 현장지원단 등의 인프라를 갖추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도내 5시(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5군(곡성·고흥·해남·무안·진도)에 학교폭력업무지원을 위한 생활인

권팀을 꾸려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협약을 맺어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3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24명이 전남 동부·서부·중부 등 3개 권역별로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현장지원단도 도내 22개 시·군별 2-5명(교장 또는 교감)으로 구성해 초기 대응 지도 및 화해·조정, 회복적 생활교육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 노력이 협력과 존중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민기자

광주보건대 다직종연계 교육네트워크 설립

24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총회

광주보건대학교(총장 정명진)는 보건·의료복지 전문가들의 직역간 협업교육과 실천을 위한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오는 24일 '한국다직종연계실천교육네트워크(KIPEN)' 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6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다이너스홀에서 열리는 행사는 광주보건대가 그동안 특성과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직역간 연계교육의 성과를 계승한 것으로 대학뿐만 아니라 현장에 적용·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다직종연계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서 보건의료복지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졸업 후 현장에 나가기 전부터 팀워크 활동을 기반으로 한 협업능력을 기르기 위해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주 서구와 함께하는데 그 의의가 깊다. 앞으로 2년간 추진할 시범사업인 커뮤니티 케어에서는 다직종연계가 사업 핵심요소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광주보건대는 서구와 대학과 현장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시너지를 배가할 예정이며, 특히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구되는 다직종연계교육 및 실천이 가능한 전문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민기자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전용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23-2번지 (구, 수기동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20층, 77평, 최상층
- 하천방향, 전체 을수리, 전망 좋음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즉시입주가
- 보3천만원에 월110만원에 임대가능
- 건설회사, 보험회사등 사무실 적합
- 시세/감정가 - 4억
- 급매 - 3억30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조정가)

문의. 010-6834-7400